

한국사회의 집합표상 연구 :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중심으로*

안 도 헌**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중심으로 나타난 집합표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분열과 갈등 양상을 조망하고자 한다. 촛불집회는 민주와 반민주, 태극기집회는 반공과 친공의 이항대립구조를 드러내며, 각각의 집단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상대 집단을 적대적으로 규정한다. 본 연구는 뒤르케임의 집합표상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집회가 어떻게 한국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두 집회에서 드러난 집합표상은 사회통합보다는 각 집단 내부의 결속과 상대 집단에 대한 배척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서, 새로운 통합적 집합표상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를 강화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의 함양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갈등을 사회 발전의 계기로 전환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 : 집합표상, 성(聖), 속(俗),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I. 머리말

한국사회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우리는 단일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두 모습은 그 믿음을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7038114).

** 영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강사.

뿌리부터 흔들어놓았다. 심지어 한국사회가 언제 하나의 공동체였던 적이 있었던가 하는 의구심마저 증폭시켰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하나의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했다.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신념과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이다.¹⁾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에서는 ‘민주와 반독재’ 코드에 기초한 신념과 감정을 폭발시키며 탄핵을 열렬하게 지지했다. 반면에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에서는 ‘국가 안보와 반공’ 코드에 기초한 신념과 감정을 드러내며 탄핵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다행스럽게도 두 집단 사이에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²⁾ 한국사회의 집회 관련 규범이 안정적으로 작동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목인하는 집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두 집단 사이의 이질감과 적대감은 하나의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회의할 만큼 충분히 강력했다. 촛불을 든 사람들은 태극기집회를 독재세력의 반민주적 행위로 표상했고,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촛불집회를 빨갱이세력의 친공산적 책동으로 표상했다.

물론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때로는 창조와 혁신을 추동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열의 장기화와 갈등의 과격화로 이어지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사회 발전의 지체와 사회 해체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³⁾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적대 세력 간의 분열과 갈등은 사회 발전의 계기로 작용하기보다는 사회 발전의 지체와 사회 해체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왜냐하면, 상대 세력에 대한 이질감과 적대감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서 드러난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적대적인 집합표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파악해보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 양상을 사회발전의 계기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두 집회는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 양상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중

1)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탄핵 찬성)을 하는 국민을 외국인, 그것도 자신이 적대시하는 국가의 국민(중국인)으로 비난하는 모습은 공동체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이다(전광준, “국힘 김민진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이게 본질””, 『한겨레신문』, 2025.01.0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080.html).

2) 최근의 탄핵 찬반집회에서도 두 집단 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체포를 둘러싸고 반대하는 세력이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등 시위가 점점 폭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김송아, 배시은, “충격적인 윤 지지자들 ‘법원 습격’ 모습...법치 수호 최후 보루마저 다 부숴다”, 『경향신문』, 2025.01.19.,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91055001>).

3) 강수택, “분열형 사회에서 연대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학적 성찰”, 『한국사회학』, 53(2), 한국사회학회, 2019, p.140.

요한 역사적 사례라는 점에서도 탐구의 가치가 있다. 두 집회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근래 보기 드물게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양상이 자발적이고도 노골적으로 표출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태극기집회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나 지원 없이 진행된 보수 진영의 첫 대규모 대중 정치집회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⁴⁾ 그런 점에서 두 집회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 만약 두 집회에 관한 비교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 양상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서는 상호 규정하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집합표상이 표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비교적 관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두 집회 가운데 하나의 집회만을 연구했다. 두 집회를 동시에 연구한 논문은 매우 적었다.⁵⁾ 하나의 집회만 연구한 논문들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드러냈다. 권영숙은 촛불집회를 ‘87년 체제’의 “재민주화”이며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으로 논의하지만, 정작 ‘갈등의 상대방’인 태극기집회에 대한 논의가 빠지면서 추상적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⁶⁾ 박성진도 촛불집회를 “새로운 역사”와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의 영감”으로 바라보았지만, 권영숙의 논의와 마찬가지로의 결함을 안고 있다.⁷⁾ 또한, 윤상철은 촛불집회의 “내적 정서”를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서 찾고 있지만, 태극기집회에 대한 논의가 누락되면서 유사한 조건에서 누군가는 ‘왜 촛불이 아닌 태극기를 들었는가’에 대한 의문에 답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⁸⁾ 그리고 최종렬은 시민영역이 민주와 반민주 코드로 안정된 미국 시민사회를 전제로 한국사회의 촛불집회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지만, 시민영역에 민주와 반민주 코드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여전히 다른 코드의 도전을 받는 한국사회의 시민영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드러

4) 이정엽, “문화 투쟁과 투쟁의 문화: ‘촛불’과 ‘태극기’의 문화정치”, 『내일을 여는 역사』, 67,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17, p.39.
 5) 김찬우·정병기,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둘러싼 정국 인식: 온라인 뉴스 댓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6),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pp.875-885; 이정엽, 위의 논문, pp.38-51; 최중숙, “‘촛불’, ‘태극기’, 그리고 5070세대 공감”, 『Issue & Review on Democracy』, 11,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7, pp.1-20; 홍영용, “‘대중적인 것(res publica)’의 회귀: ‘촛불’과 ‘태극기’를 통해 본 제도와 대중의 불화”, 『문화와 사회』, 28(1), 한국문화사회학회, 2020, pp.71-126.
 6) 권영숙,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 체제의 이중 전환”, 『경제와사회』, 117, 비판사회학회, 2018, pp.97-98.
 7) 박성진, “촛불의 시민성: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시민”, 『시민과세계』, 30,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7, pp.20-22.
 8) 윤상철, “촛불집회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의 전망”, 『경제와사회』, 121, 비판사회학회, 2019, pp.23-25.

냈다.)⁹⁾

그리고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비교 연구한 몇몇 선행연구도 지엽적이고 단편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갈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고 있다. 김창우·정병기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탄핵 그 자체의 단편적인 찬반·책임 소재·해결책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데 그쳐 심층적인 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¹⁰⁾ 이정엽은 연구 대상을 의례의 일부인 음악과 소리, 시각적 스타일 몇 가지로 한정함으로써 지엽적인 연구에 머물고 말았다.¹¹⁾ 최종숙도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참가한 5070세대의 정치적 상식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로 나아가지 못했다.¹²⁾ 또한, 홍영용은 연구 대상으로 ‘조국국면’에서의 검찰개혁 찬반집회를 선정함으로써 단일 주제를 포괄하는 한국사회의 적대적인 두 집단의 갈등 양상에 관한 전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¹³⁾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서 드러난 한국사회 집합표상의 전반적인 모습을 동시에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0월(29일, 1차 촛불집회)과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사이에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서 드러난 한국사회의 집합표상에 대해 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의 핵심 개념인 집합표상을 적용해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집합표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집합표상의 현실 적용에 앞서 집합표상의 기본 구조와 의례를 통한 생산 및 재생산 방식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¹⁴⁾ 더불어 집합표상을 한국사회에 적용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국사회학 공동체 내에서 뒤르케임 사상에 관해 주요한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의 주요 문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¹⁵⁾ 그리고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집합표상의 갈등

9) 최종렬, “이게 나라냐?: 박근혜 게이트와 시민영역”, 『문화와 사회』, 23, 한국문화사회학회, 2017, pp. 105-107.

10) 김창우·정병기, 앞의 논문, p.884.

11) 이정엽, 앞의 논문, p.40.

12) 최종숙, 앞의 논문, p.10.

13) 홍영용, 앞의 논문, pp.82-83.

14) 이를 위해 뒤르케임주의의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집합표상에 대한 뒤르케임의 견해가 잘 드러나 있는 그의 주요 저서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1965)를 검토했다. 그리고 뒤르케임의 집합표상론을 현대사회에 적용해 연구를 진행했던 뒤르케임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알렉산더의 주요 저서인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2007, 박선웅 옮김)과 주요 논문들(Alexander, 1988, 1992a, 1992b; Alexander & Smith, 1993, 2001, 2005)을 살펴보았다. 알렉산더는 뒤르케임과 달리 집합표상을 재생산과 사회통합의 시각을 넘어 갈등과 사회변화의 관점에서 연구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적대적인 집합표상을 다루는 본 연구를 위해 검토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양상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 촛불집회가 열린 2016년 10월 29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2017년 3월 11일 사이 개최된 두 집회에서 발화된 주요 참가자들의 발언·구호·노래·손피켓·펼침막과 집회 광고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언론 기사, 유튜브 영상, 박사모 홈페이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이용했다. 끝으로 한국사회의 갈등을 극복할 안정적인 집합표상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II. 집합표상과 의례

1. 집합표상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케임은 집합표상의 구조(성과 속의 이항분류체계)와 재생산 과정(의례)을 탐구했다. 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창출하고 지속하는 데 집합표상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뒤르케임은 표상을 두 가지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했다.¹⁶⁾ 그에게 표상은 사고하거나 인식하거나 지각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사고한 것, 인식한 것, 지각한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러한 표상은 사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회적으로 생성된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대표적인 표상인 종교, 신화, 도덕 등은 사회를 사고하거나 인식하거나 지각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사고한 것, 인식한 것, 지각한 것으로 사회에서 제도화되거나 조직화한 신념의 체계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개인적 표상이 아니라 사회적 표상, 다시 말해 집합적 신념과 감정의 체계로서의 집합표상이다. 이처럼 집합표상은 집단적인 삶을 표현하며 그런 한에서 개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미지와 상징적 체계를 의미한다.¹⁷⁾ 이러한 집합표상은 사회화 과정에서 행위의 주체인 개인들에게 내면화되어 사회구조와 행위를 중재하는 위치를 점하게 된다.

집합적 신념과 감정의 체계인 집합표상은 성스러움과 속됨의¹⁸⁾ 이항대립구조로¹⁹⁾ 형

15) 민문홍(2001, 2006), 박선웅(1998a, 1998b, 2007, 2008), 최종렬(1999, 2004, 2005, 2007, 2011, 2017) 등을 검토했다.

16) Lukes, S., *Emile Durkheim: His Life and His Work: A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1973, New York: Harper & Row, pp.6-7.

17) Ceri, P., "Durkheim on Social Action", in: Stephen P. Turner (ed.), *Emile Durkheim. Sociologist and Moralist*, London/New York: Routledge, 1993, p.156.

18) 뒤르케임에 의하면, 성스러움은 대상의 내적 속성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스러움은 오직

성되어 있으며,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자 도덕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집합표상의 이항대립구조에 기초해 현존하는 인간, 사회현상이나 제도, 그리고 희망하는 미래사회 등을 인식하고 평가한다. 단순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옳고 그름의 도덕적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성스러움과 속됨의 분류는 차이에 대한 인식을 넘어 차별을 생성하고 정당화하는 사회적 역할을 한다. 성스러움은 경외심과 도덕적 우월감을 유발하는 반면, 속됨은 그 반대의 감정과 도덕적 평가를 받는다. 즉, 속됨은 열등하고 저속하고 불순하며 야만적이기 때문에 감시와 억압, 그리고 정화와 배제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집합표상의 근거에 보편적으로 깔린 성스러움과 속됨의 구분은 성스러움의 지배와 속됨의 종속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집합표상을 가진 집단 간의 충돌은 매우 적대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각각 상대 집단을 속됨으로 표상하고 일차적으로 정화의 대상으로, 그것이 곤란할 때는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집합표상은 지나치게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 양상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합표상을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서 파악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집합표상을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2. 이항분류체계

뒤르케임이 연구한 집합표상의 구조는 단순히 인지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과 도덕적 판단을 발전시키는 상징적 분류체계인 이항분류체계(binary classification system)로 이루어진다. 그에 따르면, 모든 집합표상은 세계를 성(聖, sacred)과 속(俗, profane)의 두 부류

속됨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느 것도 본질적으로 성스러운 것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격화된 신뿐만 아니라, 바위·나무·샘물·조약돌 등 모든 것이 성스러울 수 있다고 하였다 (Durkheim, E.,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ranslated by Joseph W. Swain, 1965, New York: The Free Press, p.52). 본 연구에서도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집합표상이 성스러움과 속됨의 인위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가정하고, 각 집회에서 성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속되게 생각하는 것을 밝혀 한국사회의 집합표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19) 박선웅은 성스러움과 속됨의 이항대립구조를 단순히 경험적인 범주로서가 아니라 분석적인 도구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원시사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상징적 구조와 과정 그리고 사회적 현상과의 관련성을 탐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선웅, “뒤르케임의 문화사회학: 분류체계와 의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2(겨울호), 한국사회학회, 1998b, p.911). 또 구디(Goody)도 가나(Ghana) 북부의 로다가(LoDagaa)인들에게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구분이 없음을 발견하고 성스러움과 속됨의 절대적 구분을 경험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성스러움과 속됨의 이분법이 분석적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인정했다 (Goody, J., “Religion and Ritual: The Definitional Proble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12, 1961, pp.142-164). 본 연구에서도 성스러움과 속됨의 이항대립구조를 한국사회의 집합표상을 밝히는 분석 도구로 사용한다.

로 구분하는데, 이질적이며 상호배제적이고 적대적인 성과 속의 구분은 성과 속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만 규정되며, 성을 속으로부터 격리되고 금지된 것으로 정의한다.²⁰⁾ 다시 말해, 성스러운 가치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속된 가치들과의 차이에 의해서만 의미가 형성되고, 각각의 가치들은 서로의 유사성의 원리에 따라 성 혹은 속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근본적으로 자의적이며 상대적인데, 일단 어떤 대상이 성 혹은 속으로 분류된다면, 그것은 다른 대상을 다시 분류하는 잣대로 작용한다.

뒤르케임의 주장을 이어받은 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자들은 이항대립적 분석 틀을 이용해 사회의 상징체계를 연구했다. 카이유아와 더글라스(R. Caillois and M. Douglas)는 순수와 불순, 알렉산더는 민주와 반민주, 푸코(M. Foucault)는 정상과 비정상, 부르디외(P. Bourdieu)는 칸트적 미학과 대중적 미학 등과 같은 이항분류체계를 사용해 분석 대상을 분류하고 그 의미 작용을 파악했다.²¹⁾ 그리고 이들은 이항분류체계의 의미 작용은 항상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특정한 사회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것은 성(聖)과 속(俗)의 이항분류체계가 단지 ‘차이’에 관한 인식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생성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항분류체계 내에서의 성은 경외심과 도덕적 우월감을 유발하는 반면, 속은 정반대의 감정을 유발하고 도덕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 속된 것은 성스러운 것보다 열등하고 저속하며 불순하고 야만적인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통제와 감시, 억압과 정화, 그리고 배제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성과 속으로 구분되는 이항분류체계는 지배와 종속의 사회적 관계를 표상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후기 신뒤르케임주의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알렉산더는 이항분류체계가 시민사회의 담론을 구조화하며, 정치투쟁의 문화적 자원으로 동원되는 과정을 분석했다.²²⁾ 그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담론 구조는 민주와 반민주 코드로 양분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코드에 의해 시민사회의 구조적 요소, 즉 행위자, 행위자 간의 관계, 제도들은 일관되고 유형화된 방식으로 구성되고 해독된다. 다시 말해, 민주 코드는 자유의 담론을 만들고 행위자, 사회적 관계, 제도들의 특징을 민주적으로 구체화하는 반면, 반민주 코드는 억압의 담론을 창출하고, 인간형, 상호작용, 제도들을 권위주의적으로 의미화한다.²³⁾ 따라서 민

20) Durkheim, E., op. cit., pp.52-62.

21) 박선웅, 앞의 논문, 1998b, pp.916-917.

22) Alexander, J. C., op. cit., 1992a, pp.289-308; Alexander, J. C. and P. Smith, “The Discourse of American Civil Society: A New Proposal for Cultural Studies”, *Theory and Society*, 22, 1993, pp. 151-207.

23) 예컨대 민주적 행위자는 합리적, 이성적, 적극적, 현실적,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사회관계는 개방적, 비판적, 신뢰적이며, 민주적인 사회 제도는 규칙과 법에 따라 규제되며, 포용적이고 계약적이며 비인격적인

주 코드는 성스러운 지위를 갖지만, 반민주 코드는 속된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성스러움을 위협에 빠트리고 오염시키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성스러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격리되고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만다. 이러한 인지적·평가적 측면으로 인해 사람들은 민주 코드의 자유 담론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고 자신들의 행위나 제도들을 정당화하면서도, 적대적인 세력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반민주 코드의 억압 담론으로 상징적 흠집을 내고 오염시키며 위협스러운 존재로 낙인을 찍는다.

3. 의례

뒤르케임은 사람들은 “자신을 광란의 정도로까지 흥분시키는 특별한 힘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다.²⁴⁾ 즉,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열광시키는 의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성과 속의 이항분류체계로 이루어진 집합표상의 생산과 재생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례는 무엇보다도 집합표상을 생산하고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뒤르케임은 그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의례는 “단순히 신앙을 밖으로 표현하는 기호체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형성하고 주기적으로 강화하는 방법들의 집합”이며,²⁵⁾ 주기적인 의례 행사를 통해 “공통된 신념, 공통된 전통, 위대한 조상들에 관한 추억, 집합적 이상 등이 재생산된다”라고 강조했다.²⁶⁾

뒤르케임에 따르면, 의례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례는 뒤르케임의 지속적인 관심사였던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구실을 한다. 의례는 성스러운 상징을 공유하는 사회구성원 간의 유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사회통합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뒤르케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기적 간격으로, 사회의 통일성과 인성을 이루는 집합적 감정과 집합적 관념을 유지하고 공고히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회란 없다. 이러한 도덕적 재구성은 서로 밀접히 관련된 개인들이 그들의 공통된 감정을 재확인하는 재상봉, 집회와 모임에 의하지 않고는 성취될 수 없다.”²⁷⁾

뒤르케임은 의례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부정적(negative) 의례, 긍정적(positive)

것으로 부호화된다. 반면 반민주적 행위자는 비합리적, 비이성적, 소극적, 비현실적, 타율적이고, 반민주적인 사회관계는 불신이 강하고 폐쇄적, 무비관적이며, 반민주적 사회 제도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위에 의해 규제되며, 배타적이고 명령적이며 전체적인 것으로 부호화된다.

24) Durkheim, E., op. cit., p.250.

25) Durkheim, E., Ibid., p.464.

26) Durkheim, E., Ibid., p.390.

27) Durkheim, E., Ibid., pp.474-475.

의례, 속죄(piacular) 의례가 그것이다.²⁸⁾ 먼저, 부정적 의례에서는 속에 의한 성의 오염을 막아 성의 지위를 보존하려고 성과 속의 분리가 강조된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형태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에 대한 속된 것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금식하거나 청결 규칙을 준수하거나 안식일에 특정한 노동이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정적 의례는 자기 완결성을 가지기보다는 긍정적 의례를 준비하는 예비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긍정적 의례는 신도와 숭배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며 쌍방향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종교적인 실천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금지나 제한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명령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성스러운 것에 접근하거나 그것과 교류하는 의례로서 제물을 통한 신(神)과의 교제를 도모하는 희생의식, 토템 동물의 다양한 형태를 흉내 내는 모방의식, 신화나 상징적 사건 등을 재현하는 기념의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속죄 의례는 씨족 구성원의 죽음, 흉작, 가뭄, 전염병의 만연 등과 같은 슬프거나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행해지는 의례를 의미한다. 즉, 이것은 성스러운 것이 훼손당했을 때 그 상태를 회복하거나 복구하기 위해 성스러운 것에 사과하고 보상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속죄 의례는 성스러운 것의 재건을 통해 비극적 사건으로 인한 절망과 고통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뒤르케임은 의례를 집합표상의 생산과 재생산 메커니즘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제로 인식했다. 이러한 그의 이론은 초기 신뒤르케임주의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현대사회의 세속적 의례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다시 부흥시키고, 이들에게 사회의 성스러운 가치를 집단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체적 유대감과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²⁹⁾ 하지만 후기 신뒤르케임주의가 대두하면서 뒤르케임의 전통적인 주장은 비판을 받게 된다. 그들은 의례가 사회통합보다는 사회 갈등을 표출시키는 메커니즘으로 활용되는 점에 주목하면서, 특정 집단에 의한 의례의 활용이 기존의 공인된 가치들에 도전하고 대안적 가치들을 활성화하는 사회문화적 변동 가능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의례란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마당이자 성스러움의 정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종의 상징 투쟁의 장이 되는 것이며, 그 결과로 의미 있는 사회변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28) 박선웅, 앞의 논문, 1998b, p.918.

29) 민문홍, “뒤르케임 문화사회학의 지평과 과제: 한국에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1, 한국문화사회학회, 2006, p.34.

Ⅲ. 한국사회의 두 가지 집합표상

1. 태극기집회의 집합표상

태극기집회의 집합표상 구조, 즉 태극기집회의 성과 속의 이항분류체계는 반공과 친공으로 구축되었다.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을 ‘애국시민’, ‘애국국민’으로 지칭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 질서를 회복하고 자유대만을 수호하는 주체로 인식했다. 반면에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을 ‘종북좌파세력’, ‘체제전복세력’,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규정해 자신들과 대비시켰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자유대만을 무너뜨리는 적대적 집단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태극기집회의 집합표상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애국시민들은 “빨갱이를 잡아라”, “종북좌파 척결하자”, “종북 문재인은 물러가라”, “탄핵을 기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또 2016년 12월 17일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가 개최한 집회에서는 “북한지령 망국촛불”, 2017년 2월 11일 열린 12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는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손피켓이 등장했으며, 일주일 뒤 열린 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는 “촛불선동 종북발톱 태극기가 박살내자”라는 필침막이 내걸렸다. 그리고 2017년 3월까지 수십 차례 개최된 탄핵 반대 관련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발언에서도 태극기집회의 집합표상이 잘 드러난다. 몇몇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애국자다. 종북 좌파는 절대 안 된다”(2016년 12월 17일 정광택 탄기국 회장), “빨갱이들이 북한과 합작해 촛불집회를 일으켰다. 종북세력이 나라를 망치려 한다”(2017년 2월 23일 70대 남성 목사),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김정은 지지자들의 말이다”(2017년 2월 28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박근혜 대통령께서 좌파세력에 의해 유폐돼 있다”(2017년 3월 6일 남유진 구미시장), “조국을 위해 멸공의 횃불로 싸우다 죽었으니 양지바른 곳에 묻어달라”(2017년 3월 9일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빨갱이 때려잡을 생각에 가슴이 뛰다”(2017년 3월 9일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헌법재판소가 북한처럼 만들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타도해야 한다”(2017년 3월 10일 친박 인사) 등이다.

또한, 자칭 ‘애국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들의 행위를 반공적인 특성, 즉 ‘멸사봉공’, ‘순수함’, ‘국가 안보’ 등으로 묘사한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는 친공적인 특성, 즉 ‘공산적화통일’, ‘불순함’, ‘혼란과 안보위협’ 등으로 묘사해 태극기집회의 집합표상 구조인 반공(성)과 친공(속)의 이항분류체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멸사봉공의 화신으로 그

렸다. 2017년 2월 18일 열린 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 사랑한 죄밖에 없다”라는 대형 펼침막을 내걸었고, 일주일 뒤 열린 14차 국민대회에서 상영한 영상에서는 “평생 의지할 곳도 없이 나라 위해 헌신했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정치인으로 묘사했다. 2017년 2월 28일 엄마부대의 60대 여성 회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도 과도 먹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고 청렴한 분”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날 탄기국의 3·1절 태극기 선언문에서는 “단돈 1원 부정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선언했으며, 3월 7일 행주치마 의병대 소속 70대 여성은 “대통령 중 가장 깨끗하고 한 푼도 먹은 것이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청렴하고 멸사봉공하는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 공산화하려는 행위로 비난했다. 2017년 1월 26일 서울역에서 펼친 설 연휴 탄핵기각 선전전에서 탄기국은 “대한민국은 언론검찰·중복·좌익·기회주의 세력에 의한 반란 진행 중”이란 대형 펼침막을 내걸었고, 조갑제닷컴 대표 조갑제는 2017년 3월 4일 열린 16차 국민대회에서 “탄핵은 내란이다. 내란은 진압해야 한다. 내란에 가담한 기자, 검사, 판사, 특검, 국회의원들은 반역세력이다”라고 외쳤으며, 급기야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 변호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이번 탄핵은 ...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시를 바꾸려는 반역세력들의 도전”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태극기집회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성조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복좌파세력으로부터 안보와 생존을 지켜줄 수호자의 상징물로 나부꼈다.

한편, 태극기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면 접촉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한 집합의례로써 성과 속의 이항분류체계 아래에서 그들의 집합표상을 강화하고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했다. 태극기집회에서는 반공주의 이념을 성스럽게 추앙했으며, 중복적 친공산주의를 속된 것으로 비판했고, 성스러운 반공주의(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통해 반공주의의 성스러움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처럼 태극기집회는 성스러운 반공주의의 가치를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긍정적 의례의 성격, 속된 중복적 친공산주의를 성스러운 반공주의와 분리해 금기시하는 부정적 의례의 성격, 그리고 성스러운 반공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 반공주의를 복구하려는 속죄 의례의 성격을 띠었다.

2. 촛불집회의 집합표상

촛불집회의 집합표상 구조, 즉 촛불집회의 성과 속의 이항분류체계는 민주와 반민주로

구축되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을 ‘촛불시민’, ‘민주공화국 시민’으로 지칭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주체로 인식했다. 반면에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을 ‘적폐 세력’, ‘헌정파괴자’로 규정해 자신들과 대비시켰으며, 헌정 체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적대적 집단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촛불집회의 집합표상은 다양한 곳에서 드러난다. 촛불시민들은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또 윤민석이 작사·작곡한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노래를 함께 불렀다. 또 2016년 12월 31일 개최한 1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는 “적폐를 청산하자”는 손피켓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전국 비상시국회의의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집합표상은 잘 드러난다.³⁰⁾ 당시에 벌어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각종 불법·비리들을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행위이자 민주공화국의 신성한 주권을 부당하게 찬탈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촛불시민들을 “땅에 떨어진 민주주의의 가치, 상식의 가치를 회복하는” 주체로 강조했다.

또한, 자칭 ‘촛불시민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민주적인 특성, 즉 합리성과 상식, 능동성과 자율성, 진실과 신뢰 등으로 묘사한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반민주적인 특성, 즉 비합리성과 몰상식, 수동성과 의존성, 거짓과 불신 등으로 묘사해 촛불집회의 집합표상 구조인 민주(성)와 반민주(속)의 이항분류체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2016년 11월 5일 1차 대구시국대회에서 한 고등학생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순실씨와 함께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저버린 죄”를 지었다고 발언했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권력의 사유화는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것이다. 또 윤민석이 작사·작곡해 촛불집회에서 많이 불렀던 「이게 나라냐 Ⅱ」에서도 대통령의 행태를 “우주의 기운 무당의 주술”이라고 칭하며 비합리성을 꼬집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 범국민대회 사전 만민공동회에서 한 초등학생은 “대통령은 최순실이 써 준 것을 꼭두각시처럼 그냥 읽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순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발언했는데, 이처럼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수동성과 의존성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또 2016년 11월 19일 청와대 앞 시민자유발언대에 선 한 시민은 편의점의 1+1 상품 판매에 빗대어 “콜라를 샀더니 환타를 주네. 그리고 그 콜라가 말하기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야! 가서 환타한테 권평

30)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백서팀,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의 기록1, 2』, 2018, 서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기록기념위원회, pp.372-373.

받고 와라”라고 하는 꼴이라며 대통령의 의존성을 조롱했다. 그리고 윤민석이 작사작곡한 세월호 관련 노래인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도 촛불집회에서 많이 불렀는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가사에서 드러나듯이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둠과 거짓의 무리로 묘사했다. 또 “염병하네”로 유명해진 한 청소년노동자는 2017년 2월 4일 범국민대회에서 검찰에 소환되는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도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 “염병하네”를 외쳤다고 했는데,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의 거짓된 행동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촛불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면 접촉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한 집합의례로써 성과 속의 이항분류체계 아래에서 그들의 집합표상을 강화하고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했다. 촛불집회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성스럽게 추앙했으며, 반민주적 권위주의를 속된 것으로 비판했고, 성스러운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민주주의의 성스러움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처럼 촛불집회는 성스러운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긍정적 의례의 성격, 속된 반민주적 권위주의를 성스러운 민주주의와 분리해 금기시하는 부정적 의례의 성격, 그리고 성스러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 민주주의를 복구하려는 속죄 의례의 성격을 띠었다.

IV. 한국사회의 집합표상을 위한 제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벌어진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대결은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두 집합표상의 충돌이었다. 흔히 보수와 진보로 크게 나뉘는 한국사회의 두 세력이 각각 공유하고 있던 집합표상이 적나라하게 부딪친 것이다. 그 충돌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의 사회에 적대적인 두 개의 집합표상이 병존하는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뒤르케임이 주장한 집합표상의 사회통합 기능은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 집단 내부의 통합력과 상호 간 배척력만 강화해 사회 전체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을 뿐이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같은 의례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즉, 사회통합의 장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마당이자 성과 속의 이항대립구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치열한 상징 투쟁의 장이 되었다.

민주와 반민주의 구조와 반공과 친공의 구조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말이다. 알렉산더의 주장처럼 사회변동의 가능성을 잉태한 갈등의 현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시점에서 적대적인 두 세력의 집합표상을 넘어 한국사회의 통합력을 강화해줄 새로운 집합표상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의 집합표상, 즉 반공과 친공의 이항대립구조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더라도 현시대를 대표할 집합표상으로 한국사회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냉전의 시작과 더불어 형성되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확고히 자리 잡은 반공 이데올로기는 한동안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주류적 집합표상으로 군림했다. 냉전 시대의 극단적 경쟁 상황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논리로 한국사회의 구성원 다수를 포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노동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경제 성장에 일정 부분 이바지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반공 이데올로기는 건국 후 40여 년간 권위주의 정권을 지탱해온 버팀목으로 악용되면서 한국사회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긴 것도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고,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국가 폭력을 동원해 짓밟는 것을 정당화했다. 노동 현장에서도 자본 권력과 국가 권력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파괴하고, 이에 저항하는 개인적이고 조직적인 모든 노력을 국가 폭력으로 억압하는 것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소수자들(여성, 농민, 장애인 등)의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논리로 동원되었다. 이처럼 반공과 친공의 이항대립구조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려 싸웠던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배제했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을 박멸해야 할 적대 세력(빨갱이)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헌법적 기본권을 누리는 자율적인 주체로 거듭난 현재의 한국사회를 대표할 수는 있는 집합표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집합표상, 즉 민주와 반민주의 이항대립구조를 현재의 모습 그대로 한국사회를 대표할 집합표상으로 제안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집합표상은 역사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수십 년 동안 투쟁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사회 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매우 어렵고 오랜 노력의 결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국사회가 민주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존과 배려, 개방과 포용을 성스러운 민주적 특성으로 주장하면서도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지나치게 적대적인 태도, ‘정치 팬덤’으로 지칭되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폐쇄적인 몰입,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여성, 성 소수자 등)에 관한

관심 부족과 같은 비민주적인 특성 또한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집합표상을 넘어 한국사회 전체의 집합표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성숙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일부 극단적인 세력을 제외하고는 우호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정치인에게 폐쇄적으로 몰입하는 태도를 경계해 배려와 관용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소수자들이 한국사회의 온당한 시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특정 집단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폐쇄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변화하려는 더 개방적이고 더 포용적인 민주주의에 대해 성찰하고, 또 촛불집회와 같은 의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현재의 극단적인 갈등을 넘어 한국사회의 통합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집합표상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V. 맺음말

한국사회에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는 상반된 집합표상을 대변한다. 이 두 집합표상의 충돌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집회들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이를 넘어서,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와 신념의 대립을 상징한다. 태극기집회의 반공과 친공의 이항대립구조는 과거의 냉전적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현대 한국사회의 다수 구성원에게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착오적 표상이다. 반면, 촛불집회의 민주와 반민주의 이항대립구조는 민주화 과정에서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배타성과 폐쇄성,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관심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집합표상을 모색해야 한다. 태극기집회의 구시대적인 반공과 친공의 이항대립구조를 넘어, 촛불집회의 민주와 반민주의 이항대립구조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시민이 헌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민주주의의 성숙에 관해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이를테면, 사회적 소수자와의 연대와 그들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몰입을 경계하며,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러한 상반된 집합표상의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를 명확히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데 있다. 특히, 집합표상이 사회통합보

다는 내부 결속과 외부 배척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통합적 집합표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공존할 수 있는 더 포용적이고 더 개방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아무쪼록 한국사회의 통합력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집합표상이 탄생하여, 직면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 발전의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수택, “분열형 사회에서 연대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학적 성찰”, 『한국사회학』, 53(2), 한국사회학회, 2019, pp.137-165.
- 권영숙,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 체제의 이중 전환”, 『경제와사회』, 117, 비판사회학회, 2018, pp.62-103.
- 김송이·배시은, “충격적인 윤 지지자들 ‘법원 습격’ 모습…법치 수호 최후 보루마저 다 부셨다”, 『경향신문』, 2025.01.19.,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91055001>.
- 김찬우·정병기,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둘러싼 정국 인식: 온라인 뉴스 댓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6),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pp.875-885.
- 민문홍, 『에밀 뒤르케임의 사회학: 현대성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2001, 서울: 아카넷.
- 민문홍, “뒤르케임 문화사회학의 지평과 과제: 한국에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1, 한국문화사회학회, 2006, pp.19-54.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백서팀,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의 기록1, 2』, 2018, 서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기록기념위원회.
- 박선웅, “문화, 의례와 정치변동: 한국의 민주적 전환”, 『한국사회학』, 32(봄호), 한국사회학회, 1998a, pp.29-61.
- 박선웅, “뒤르케임의 문화사회학: 분류체계와 의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2(겨울호), 한국사회학회, 1998b, pp.905-931.
- 박선웅, “의례와 사회운동: 6월항쟁의 연행, 집합열광과 연대”, 『한국사회학』, 41(1), 한국사회학회, 2007, pp.26-56.
- 박선웅, “제프리 알렉산더의 문화사회학”, 『문화와 사회』, 4, 한국문화사회학회, 2008, pp.73-113.
- 박성진, “촛불의 시민성: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시민”, 『시민과세계』, 30,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7, pp.1-25.
- 윤상철, “촛불집회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의 전망”, 『경제와사회』, 121, 비판사회학회, 2019, pp.12-36.
- 이정엽, “문화 투쟁과 투쟁의 문화: ‘촛불’과 ‘태극기’의 문화정치”, 『내일을 여는 역사』, 67,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17, pp.38-51.
- 전광준, “국민 김민진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이게 본질””, 『한겨레신문』, 2025.01.03., <https://www.han겨레.com>

//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080.html.

- 제프리 알렉산더, 박선웅 옮김,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 2007, 경기: 한울.
- 최종렬, 『타자들: 근대 서구 주체성 개념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탐구』, 1999, 서울: 백의.
- 최종렬, “뒤르케임의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에 대한 담론이론적 해석: 신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을 넘어”, 『한국사회학』, 38(2), 한국사회학회, 2004, pp. 1-31.
- 최종렬, “사회이론, 왜 문화적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가?”, 『사회이론』, 27, 한국사회이론학회, 2005, pp. 9-56.
- 최종렬, “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 스트롱 프로그램과 실제 연구”, 『문화와 사회』, 2, 한국문화사회학회, 2007, pp.165-234.
- 최종렬, “사회적 공연으로서의 2008 촛불집회”, 『한국학논집』, 4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pp. 227-270.
- 최종렬, “이게 나라냐?: 박근혜 게이트와 시민영역”, 『문화와 사회』, 23, 한국문화사회학회, 2017, pp. 101-153.
- 최종숙, “‘촛불’, ‘태극기’, 그리고 5070세대 공감”, 『Issue & Review on Democracy』, 11,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7, pp.1-20.
- 홍영용, “‘대중적인 것(res publica)’의 회귀: ‘촛불’과 ‘태극기’를 통해 본 제도와 대중의 불화”, 『문화와 사회』, 28(1), 한국문화사회학회, 2020, pp.71-126.
- Alexander, J. C., “‘Watergate’ and Durkheimian Sociology”, in: Jeffrey C. Alexander (ed.), *Durkheimian Sociology: Cultural Stud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187-224.
- Alexander, J. C., “Citizen and Enemy as Symbolic Classification: On the Polarizing Discourse of Civil Society”, in: Michele Lamont and Marcel Fournier (eds.), *Cultivating Differences: Symbolic Boundaries and the Making of Ineq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a, pp.289-308.
- Alexander, J. C., “The Promise of a Cultural Sociology: Technological Discourse and the Sacred and Profane Information Machine”, in: Neil Smelser and Richard Munch (eds.), *Theory of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b, pp.293-323.
- Alexander, J. C. and P. Smith, “The Discourse of American Civil Society: A New Proposal for Cultural Studies”, *Theory and Society*, 22, 1993, pp.151-207.
- Alexander, J. C. and P. Smith, “The Strong Program in Cultural Sociology: Elements of a Structural Hermeneutics”, in: Jonathan H. Turner (ed.), *Handbook of Sociological Theory*,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2001, pp.135-150.
- Alexander, J. C. and P. Smith, “Introduction: The New Durkheim”, in: Jeffrey C. Alexander and Philip Smith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Durkhei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1-38.
- Ceri, P., “Durkheim on Social Action”, in: Stephen P. Turner (ed.), *Emile Durkheim. Sociologist and Moralist*, London/New York: Routledge, 1993, pp.135-162.
- Durkheim, E.,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ranslated by Joseph W. Swain, 1965, New York: The Free Press.

Goody, J., "Religion and Ritual: The Definitional Proble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12, 1961, pp.142-164.

Lukes, S., *Emile Durkheim: His Life and His Work; A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1973, New York: Harper & Row.

【 Abstract 】

A Study on the Collective Representations in Korean Society
: Focusing on Candlelight Rally and Taegeukgi Rally

Ahn, Do Hun

This study analyzes the collective representations manifested in the Candlelight Rallies and Taegeukgi Rallies within Korean society, aiming to explore the patterns of division and conflict. The Candlelight Rallies exhibit a binary opposition of democracy versus anti-democracy, while the Taegeukgi Rallies display a structure of anti-communism versus pro-communism. Each group forms its identity within these frameworks and perceives the opposing group antagonistically. Utilizing Durkheim's theory of collective representation,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se demonstrations exacerbate societal divisions in Korea.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collective representations highlighted in the rallies contribute more to internal cohesion and external antagonism than to societal integration.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 new integrative collective representation in Korean society.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maturation of democracy, the strengthening of solidarity with social minorities, and the cultivation of an open attitude that embraces criticism.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provide directions for transforming societal conflicts into opportunities for social development in Korea.

Key Words : Collective Representation, Sacred, Profane, Candlelight Rally, Taegeukgi Rally

